[에이전트 이름(있는 경우) 그렇지 않으면 비워두세요]

[여기에 제목 입력]

멋진 제목을 작성하는 몇 가지 팁:

* 제목은 최대한 주의를 끌 수 있도록 합니다.
* 짧고 강력한 제목이 독자를 끕니다.
* 제목은 픽션 작품의 주제와 맞아야 합니다.
* 제목 분석기와 같은 최신 도구를 사용하여 읽기 쉽고 더 감정적인 제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각 페이지의 오른쪽 위 모서리에 저자 성, 작품 제목, 페이지 번호가 표시됩니다. 이 서식 파일은 문서 제목이나 저자 이름(단일 저자)를 변경할 때 각 페이지의 머리글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. 머리글 예제는 다음과 같습니다. JACK – THE RISING – 23.

저자

저자 이름 저자 성

대략 [백 자리수로 반올림한 단어 수 입력]개 단어

[법적 이름]

[주소]

[전화 번호]

[전자 메일 주소]

[웹 사이트]

픽션 작품에는 목차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소설의 장 이름에 설명하는 제목이 있는 경우 목차에 모든 항목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렇게 하면 소설의 전체 보기가 한 눈에 표시됩니다.

목차를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도록 하려면 다음 스타일 중 하나를 사용하여 모든 제목의 서식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합니다. 제목 1, 제목 2 또는 제목 3 문서에 서식을 지정하고 나면 목차로 돌아와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합니다. 바로 가기 메뉴에서 "필드 업데이트"를 선택하여 자동으로 업데이트합니다.

목차

[[1장] — [여기에 제목 입력] 1](#_Toc12287852)

[[2장] — [여기에 장 제목 입력] 3](#_Toc12287853)

[[다음은 하위 제목의 예입니다.] 3](#_Toc12287854)

[[다음은 하위 제목의 예입니다.] 3](#_Toc12287855)

[[3장] — [여기에 장 제목 입력] 4](#_Toc12287856)

# [1장] — [여기에 제목 입력]

장 제목은 페이지의 약 1/3 아래쪽에서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간격은 제목 1 스타일로 기본 제공됩니다. 간격이 올바른지 확인하려면 새 장을 시작하기 전에 각 장 끝에 다음 페이지 구역 나누기를 삽입합니다.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레이아웃 리본으로 이동하고 "나누기"를 선택한 다음, 메뉴의 "구역 나누기" 섹션에서 "다음 페이지"를 선택합니다.

[단락 열기]

위의 "단락 열기"를 클릭하고 책을 입력하기 시작합니다. 이는 장의 여는 단락이므로 들여쓰기가 없습니다. 스토리를 소개하고 소설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무대를 설정합니다. 소개 단락의 처음 몇 줄과 장의 처음 몇 단락이 독자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. 쓰기가 시각적일수록 더 좋습니다.

여는 단락에 "**기본**"이라는 스타일을 사용합니다.

[다음 본문 단락]

새 단락이므로, 이는 첫째 줄에서 들여씁니다. 그러면 독자가 텍스트 블록 중에서 새 단락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새 장면이 아닙니다. 새 장면 시작은 들여쓰기되지 않으며 해시(#) 기호 다음에 나옵니다.

각 장의 두 번째 및 후속 단락은 첫 줄 들여쓰기로 시작합니다. 이는 "표준 **들여쓰기"라는 스타일로 기본** 제공됩니다.

* 새 페이지에서 모든 새 챕터를 시작합니다.
* 단락 사이에 여분의 공백을 추가하지 마세요. 모든 줄에 2줄 간격을 설정합니다. 이중 간격 서식은 두 가지 표준 스타일로 기본 제공됩니다.
* 모든 문장 부호 뒤에는 다음 문장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의 공백만 사용합니다.
* 필사본에서 밑줄을 치지 마세요. 그러나 *기울림꼴*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#

해시 태그(#)는 동일한 장에서 새 장면의 시작을 나타냅니다. 이전 장면에서 구분할 때는 구역 나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

소설의 각 장은 다양한 장면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. 이 장면에서 작업 및 대화를 설명합니다. 각 장면의 시작, 가운데 또는 끝 부분이 있습니다.

[새 장면은 들여쓰기 없이 시작]

새 장면이나 각 장의 첫 번째 단락은 "**기본**" 스타일로 시작해야 합니다.

[새 장면의 두 번째 단락.]

모든 새 단락과 대화도 들여써야 합니다. 이 경우에는 "**표준 들여쓰기**"라는 스타일도 사용됩니다.

소설에는 여러 장이 있으므로, 독자가 다음 장을 계속 보도록 각 장 끝에는 충분한 동기를 두어야 합니다.

[새 장면의 세 번째 단락]

# [2장] — [여기에 장 제목 입력]

## [다음은 하위 제목의 예입니다.]

하위 제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.

[단락 열기]

[다음 본문 단락]

[다음 본문 단락]

## [다음은 하위 제목의 예입니다.]

[단락 열기]

[다음 본문 단락]

[다음 본문 단락]

# [3장] — [여기에 장 제목 입력]

[단락 열기]

[다음 본문 단락]

[다음 본문 단락]

[필사본의 마지막 줄입니다]

끝

이는 필사본 끝을 표시하고 텍스트의 마지막 줄 뒤의 이중 공백 줄 다음에 이어집니다.